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열왕기하 20:12-19
2025 년 10 월 26 일 오전 11 시

기도의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 주여 도우소서 >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앗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낮을 벽으로 향해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 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추락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찾을 해답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병석에서 자신이 했던 기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사 38:10-20).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일평생 성전에서 수금을 뜯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왕좌를 내려놓고 성전에서 예배자로 살겠다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왕하 20:5). 놀라운 응답 앞에서 히스기야는 아멘 대신 징표를 요구합니다.

기도의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왕하 20:12-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왕하 20:8).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징표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왕하 20:9).

1. 은혜를 구한 사람 – 병은 나았으나 감사가 사라진 사람

해시계의 그림자가 십 도를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마알롯(nilyp)’은 ‘계단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해시계라고 하면 조선 시대의 원형 해시계인 ‘양부일구’와 같은 동그라미를 떠올립니다. 현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는 계단형 해시계입니다. 계단형 해시계는 열 두 계단 또는 열 다섯 계단을 만든 후 해시계 바늘의 그림자가 몇 번째 계단에 있는지를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였습니다. 현대 갑자기 그림자가 열 계단을 나아가거나 물러간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자 징표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열 계단 물러가는 징표를 요구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왕하 20:10).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왕하 20:11).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모자라, 왕이 요구한 놀라운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후 삼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감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 그의 이야기 다음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바벨론 사신의 방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역대하 말씀은 이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대하 32:24-25). 마음이 교만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평생 성전에서 수금을 뜯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자, 왕의 자리가 다시 좋아졌고,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수금이나 뜯는 삶은 시시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예배자로 살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왕하 20:12). 당시 바벨론은 앗수르에게 반기를 드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은 앗수르 군대를 물리친 유일한 왕인 히스기야와 반 앗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또한 편지에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열 계단 뒤로 물러간 이적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대하 32:31).

이는 하나님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보물고의 금은보화와 군기고의 모든 것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왕하 20:13). 앗수르의 군대로부터 노획한 모든 것을 자랑삼아 보여주었습니다. 그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왕하 20:14).

2. 교만한 사람 - 자기 영광을 구한 왕

이사야는 사신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헤시게 이적에 대해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첫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그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이에 이사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무엇을 보았냐고 묻자, 히스기야는 왕궁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왕하 20:15).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왕하 20:17). 히스기야가 자랑 삼아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과 왕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왕하 20:18). 유다 왕궁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 환관이 되리라는 충격적인 멸망 예언 앞에서, 히스기야는 놀람도록 태연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왕하 20:19 하반절). 이는 '내 시대만 아니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 앞에서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 앞에서는 ‘내 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전에

앗수르에게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나라가 망해도 나만 태평하면 된다고 말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감사가 사라졌을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바벨론 사신들의 질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이 귀한 기회를 자기 자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자기 자랑을 늘어 놓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부함, 자신의 부귀 영화, 자신의 큰 키와 아름다움, 자신의 권세와 능력, 자신의 지식과 지혜, 자신의 힘과 용맹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십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히스기야는 결국 받은 은혜를 심판의 도구로 바꿉니다. 15년 생명 연장 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지 약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왕하 21:1).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최장 기간 재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 긴 시간 동안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을 가장 격노케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3 절).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하늘의 일월 성신 즉,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섬겼습니다.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성전 마당에 버젓이 세웠습니다. “또 여호와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5 절).

3. 교만의 결과

그리고 몰록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6 절).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 대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임하였습니다. 나아가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흘렸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16 절).

전승에 따르면, 이 악행의 희생자 중 한 명이 히스기야의 멘토였던 선지자 이사야였으며,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둔 듯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히 11:37).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왕하 21:12). 결국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참으로 슬프게도 차라리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15 년의 연장된 삶은, 성군 히스기야를 악한 아버지로 만들었고, 유다 멸망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왕하 20:12-19)

히스기야가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히스기야는 성군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후에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자랑하였고, 므낫세라는 악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막 14:36 상반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하반절). 두 번째도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 26:42).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히스기야는 자신의 '소원'을 구하여 생명을 연장했지만,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었고, 아들 므낫세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비극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택했다면, 히스기야는 성경에 뛰어난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면, 교만으로 은혜가 진노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를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히스기야처럼 교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으로 잃지 않고, 오직 감사로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